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순례 ‘그길을 따라 걷다’ 체험 수기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땀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그 길을 따라 걷다”의 성지 순례를 마치고.

사직동 성당 임세윤 올리안나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직만 하면 성지순례를 마음껏 하겠다고 늘 꿈꾸며 가슴이 부풀어 있었는데, 코로나19와 퇴직이 맞물려 교구 성지 순례단이 해체되어 막막하였다. 나이도 있고 운전도 서툴러 감히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그 길을 따라 걷다”의 성지순례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성당 자매님들과 형제님들 몇 분한테 같이 순례를 하자고 제안해 봤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다행히 두 자매님이 이미 시작하여 몇 군데 다녀온 팀이 있어 그 팀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기쁘게 순례를 시작하였다.

16곳의 순례를 다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코로나19 시기이고 어렵게만 느껴져서 꼭 다 못해도 순례를 시작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감사였다.

보은 명예목 교우촌(21년 3월25일)을 시작으로 군산 신시도 체류지와, 부여 도양골 교우촌, 제천 배론 교우촌을 작년 순례하고 먼 곳의 순례는 포기하였는데 우리를 인도한 자매님의 따님인 골롬바 자매가 아주 먼 울산과, 부산, 서울 등을 3 차례로 나누어 운전을 해주면서 함께 순례를 하였다.

자매님들과의 마지막 순례 날(22. 6. 1) 안양 수리산 교우촌 성지에서 두 분이 순례를 마칠 수 있음에 감사 미사를 다 함께 봉헌 하였으며, 서울 당고개 순교지 성당을 끝으로 그 자매님들과의 순례를 마쳤다.

사실 최양업 신부님의 ‘그 길을 따라 걷다’ 순례 중에 개인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나보다 2살 위인 사랑하는 오빠를 5월 16일에 하느님 곁으로 보냈다.

오빠는 28년 전에 남편을 혈액암으로 먼저 보내고 아이들과 힘들게 사는 나에게 의지와 힘이 되는 큰 기둥이었다. 그런 오빠가 크게 지병도 아니고 백신 부작용으로 금년 3월에 입원해서 5월 16일에 생각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이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병문안도 못 가보고 그렇게 보냈다. 더 안쓰러운 것은 우리 6남매 중 그 오빠만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고향의 장지에 모셔놓고 돌아온 이틀째 되는 5월 21일 부산에 있는 수영 장대 순교지와 오륜대 순교자 묘역의 성지순례가 약속되어 있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정신은 혼미하고 눈은 떠지지도 않고 얼굴은 텅텅 부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프고 성지를 갈 염치가 없는 건 오빠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세례를 못 시키고 보낸 것이었다.

최양업 신부님의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느님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신 발자취를 찾아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 걷기 위한 순례가 너무 부끄럽고 면목 없고 거짓의 순례라는 생각에 잠을 설치며 그래도 가야 되나 고민이 되었다. 약속한 자매님들한테 이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을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가는 건 순례가 아니고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망설이다가 염치없지만 하느님께 고백하며 밤새 울었다.

아버지 자녀가 되지 못하고 선종한 오빠가 한없이 가여워 하느님 아버지께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울부짖으며 한없이 울기만 하는데 문득 성지에 가서 성인들과 순교자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빌어달라고 떼를 써보면 오빠가 구원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래서 떠지지도 않는 눈과 만신창이가 된 몸이지만 용기를 내어 순례길에 올랐다. 성지에서 하느님의 자녀이신 친정 부모님과 오빠를 같이 봉헌하며 오빠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고 성인과 순교자들 특별히 '길 위의 순교자이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께 떼를 부렸다.

다시 그렇게 순례를 시작하였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전에는 순례도 하고 콧바람도 쐬고 하는 마음이었었는데 오빠의 구원을 비는 간절함 때문인지 부산 순례를 마친 후, 다음 순례지부터는 최양업 신부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하였다. 아니, 이미 나이 많은 우리가 순례하기엔 어려운 울산과, 부산, 수리산과 서울 등을 골룸바 자매를 통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산 순례 일주일 후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28일 배티성지 '최양업 신부님과 함께 걷는 순례길'을 75세이신 자매님을 모시고 참석하였다. 11시 미사를 시작으로 이성재 신부님과 오후 1시에 최양업 신부님 탄생 175주년 기념성당에 모여 이성재 신부님께서 '최양업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에 관한 강의'와 오리엔테이션을 하신 후, 우리는 신부님께서 직접 만드신 지팡이를 각자 하나씩 지니고 출발했다.

최양업 신부님의 어린 시절이 담긴 최양업 신부님 동상인 첫째 고개부터 8고개 순교 현양 탑(천국)까지 이성재 신부님의 마음을 울리는 짧은 설명과 가이드북 속의 기도과 묵상과, 걸으면서 바치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반복된 기도는 힘이 되었다.

힘든 고개를 헉헉거리며 다리를 팔로 들어 올리기도 하고 기어오르기도 하는데 문득 옆에 있는 풀과 어린잎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문득, 최양업 신부님의 쥔신을 신으시고 허기지신 배를 어린 나뭇잎과 풀로 채우시는 모습이 떠오르며 ‘아이구 하느님! 저는 점심도 먹고 발에 맞는 운동화도 신고 길도 만들어져 있고, 지도 신부님과 동료들과 함께인데도 힘들어 죽겠다고 끙끙거리네요.’ 하며 묵상을 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는 길도 험하고 산짐승들도 많고, 신발도, 먹을 것도 없이 오직 하느님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시고자 그 험한 길을 걸으신 최양업 신부님을 생각하니 죄송하기 그지없었다.

특별히 여덟 고개의 순례길에서 정말 최양업 신부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다. 어느 순례지보다 힘든 배티성지 순례였는데 피곤함도 오빠의 구원에 대한 불안감도 잠시 사라지며 마음이 평온해 짐을 느낀 것이다. 이렇게 걷는 순례를 마치고 175주년 성당에서 신부님과 함께하는 시복시성 기도문으로 마침기도와 신부님의 강복으로 순례를 마쳤다.

며칠 전에 필사한 집회서 38장 23절이 생각났다. ‘죽은 이는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 그에 대한 추억만을 남겨 두고 그의 영이 떠나갔으니 그에 대하여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그 후로도 순례지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주간엔 시니어 직장에 출근) 번갈아 가며 다녔는데도 지치지도 병이 나지도 않고 오히려 힘이 나는 것 같았다.

순서 없이 순례를 하다 보니 6월 18일 토요일 마지막 순례지가 내가 사랑하는 자매와 함께한 최양업 신부님 탄생지인 청양 다락골 성지였다. 온 정성을 다하여 오빠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자녀인 부모님과 같이 미사봉헌을 하고 미사 책을 펴서 입당송을 보고 읽는 순간 ‘아! 하느님, 온전한 저의 미사이옵니다. 감사합니다.’를 마음속으로 외쳤다.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 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의 말씀이었다. 마음이 뭉클하며 눈에선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몇 번을 읊조리고 읊조렸다. 이렇게 2년을 거쳐 최양업 신부님의 발자취를 찾아 순례를 하였다. 순례 도중에 일어난 모든 일들과 순례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마음속 깊이깊이 감사드렸다.

순교자들의 위대하심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배티성지의 다섯째 고개(6인 순교자묘)에서 바친 묵상을 바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유혹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진정 우리가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길 청합니다.’

‘길 위에 순교자이시며, 땀의 증거자이신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해 끊임 없이 기도합니다.